

## 국내 체질인류학의 연구 분야와 그 변화에 대한 검토 - 대한체질인류학회지와 해부·생물인류학에 출판된 원저논문을 중심으로

우은진<sup>1</sup>, 김민서<sup>1</sup>, 이대한<sup>1</sup>, 서민우<sup>1</sup>

<sup>1</sup>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학과

## A Review of the Sub-disciplines and Their Changes in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Eun Jin Woo<sup>1</sup>, Min Seo Kim<sup>1</sup>, Daehan Lee<sup>1</sup>, Min Woo Se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History, College of Liberal Arts, Sejong University

**Abstract** : Physical anthropology initial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ethnic origins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However, since the mid-20<sup>th</sup> century, it has transformed into an interdisciplinary field that comprehensively explores the biological attributes of human and it is widely known as biological anthropology.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by examining the journals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Additionally, in order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s for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this study also conducted a comparative review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 significant majority of the articles in domestic journals were focused on the field of anatomy. Meanwhile, research categorized under biological anthropology accounted for only about 10% of the total. In contrast, research in American journal cover a wide range of sub-disciplines within biological anthropology, including primatology, paleoanthropology, skeletal biology, bioarchaeology, human biology, and genetics. The predominance of research in the field of anatomy in domestic journ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y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which began primarily within departments of anatomy.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forensic anthropology, along with a slight rise in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ioarchaeology. This indicates a shift towards greater diversity in the topics of biological anthropology of Korea. It is hoped that these changes will continu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as a comprehensive field that addresses the biological attributes of human, integrating research from a wider range of disciplines.

**Keywords** : Physical Anthropology, Biological Anthropology, Anatomy,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본 연구는 대한체질인류학회 2023년 정책연구비로 수행되었음.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June 10, 2024; **Revised:** August 17, 2024;

**Accepted:** August 24, 2024

**Correspondence to:** 우은진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역사학과)

**E-mail:** redqin@sejong.ac.kr

## 서론

한국의 체질인류학은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방 후에는 1958년 창립된 대한체질인류학회를 중심

으로 지금까지 학술활동이 이어져 한 세기의 역사를 갖는 학문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대한체질인류학회는 1988년 발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술지 발간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회 창립 당시에는 대한해부학회와 공동으로 연례학회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1988년부터 독자적인 학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올해 창립 67회를 맞았다. 이 글은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학회와 국내 체질인류학이 걸어온 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진행된 대한체질인류학회 정책과제의 연구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대한체질인류학회는 인류 진화는 물론 현생 인류의 생체자료에 대한 계측, 인류문화사적 변화에 따른 신체현상과 체질상의 변화, 임상해부학적 의의가 있거나 인류의 질병 치료 혹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포괄하여 국내에 체질인류학을 소개하고 그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 하지만 오랜 학문적 전통을 지니며 학술지 발간과 연례학회를 비롯한 학술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국내 체질인류학은 활발한 학문분야라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국내 이 학문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예로 대중에게 ‘체질’의 의미가 사상의학에서 다루는 사람의 체질로 오해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기원 문제에만 집착하는 학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 맨눈해부학 연구와 동일시되거나 해부학에 속하는 세부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질인류학은 인간의 생물적 특성을 탐구하는 융합 학문으로 경계 학문 간 교류를 통해 발전해오기보다는 경계 간 학문과 철저히 분리되어 존재해왔다고 평가된다[2].

한편 세계적 관점에서 체질인류학은 집단의 민족적 기원과 형태적 특성의 분석에 집중했던 초창기의 유형론적 경향에서 벗어나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다윈주의를 토대로 인류의 생물적 속성을 포괄적으로 탐구하고 그 궤적을 추적하는 다양한 분과학문을 품으며 융합학문으로 변모한다[3]. 구체적으로 인종 간의 차이에 집착한 초창기 체질인류학의 식민주의적 접근은 20세기 중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 대신에 생물학을 근간으로 생태적, 진화적 관점에서 인류를 탐구하고자 하면서 이 학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늘날에는 생물인류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국체질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는 학회 차원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학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학회 명칭을 미국생물인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Biological Anthropologists)로 바꾸고 이듬해 2022년부터 학술지 명칭도 함께 바꾸었다. 국내 체질인류학 연구도 최근 들어 기존에 없던 연구가 새롭게 시도되고 연구자 수가 다소나마 증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학술

지 명칭을 대한체질인류학회지(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에서 해부·생물인류학(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으로 바꾸어 기존의 체질인류학 연구를 통합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아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현재 해부·생물인류학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와 인체의 생물학적 구성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 학술지로, 맨눈해부학, 임상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고인류학, 고병리학을 비롯한 해부학 및 생물인류학 전반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음을 홈페이지 학술지 소개에서 밝히고 있다[4].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연구는 체질인류학에서 생물인류학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경계 간 연구 주제의 공유나 학문적 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창기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체질인류학 연구를 이끌어 온 대한체질인류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의 논문을 검토하여 국내 체질인류학 연구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를 미국생물인류학회지의 연구 경향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극복해야 할 한계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대한체질인류학회의 공식학술지로서 대한체질인류학회지와 해부·생물인류학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정기 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대한체질인류학회지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해부·생물인류학에 게재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출판된 원저 논문(original research)을 검토하여 해당 연구가 포함된 세부 학문분야를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초록과 키워드를 토대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크게 해부학과 생물인류학에 속하는 연구를 구분하고 다시 두 학문의 하위 분과학문을 세분하였다. 세부 분과학문은 해부학의 경우 맨눈해부학, 임상해부학, 신경해부학, 발생학, 조직학, 영상해부학, 분자생물학, 해부학 교육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생물인류학은 계측과 비계측 변이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체질인류학을 별도의 범주로 우선 구분하고 고인류학, 인간생물학, 생물고고학, 고병리학, 법의인류학 분야로 세분하였다(Table 1). 이외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연구는 기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 각 분야별 연구 비중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시간대를 1988~1999년, 2000~2009년, 2010~2019년, 2020~2023년의 네 개 범주로 나누어 해당 시기에 출판된 논문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생물인류학 분야 연구 회원과 학회 규모를 갖는 미국생물인류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의 논문도 해당 연구의 주제를 파악하여 세부 연구 분야를 분류하였다. 미국생물인류학회지는 체질인류학회지라는 이름으로 1918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부터 학회지의 명칭이 생물인류학회지로 변경되었으며, 매달 정기 발행되면서 매년 적게는 80편 남짓, 많게는 200편 이상이 출판된다. 이렇듯 방대한 규모의 논문 수를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된 연구를 토대로 최근 이십 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연구 경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해당 학술지는 국내와는 다르게 해부학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생물인류학회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생물인류학 분야의 여섯 개 세부 분야를 토대로 연구 분야의 비중과 변화를 파악하였다(Table 1). 각

분야별 연구 비중의 시대별 변화는 국내 학술지와는 달리 논문의 수가 방대하여 약 5년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범주화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결 과

대한체질인류학회지의 1988년 발간호부터 2023년까지 해부·생물인류학에 실린 원저 논문은 총 841편에 달하며, 각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 분야를 분류한 결과는 Table 2의 내용과 같다. 지금까지 조직학 분야의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출판되었고 그 뒤로 맨눈해부학, 임상해부학 분야의 연구가 2, 3위 순으로 많이 출판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기반한 체질인류학 연구는 약 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물인류학 범주에 포함되는 고인류학, 인간생

**Table 1.** Classification of subfield categories examined in this study

Journal	Category	Sub-disciplin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Anatomy-Biological Anthropology	Anatomy	Gross anatomy, Clinical anatomy, Neuroanatomy, Embryology, Histology, Imaging anatomy, Molecular biology, Anatomy education
	Biological anthropology	Physical anthropology, Paleoanthropology, Human biology, Bioarchaeology, Paleopathology, Forensic anthropology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Biological anthropology	Primateology, Paleoanthropology, Human biology, Skeletal biology, Bioarchaeology, Genetics

**Table 2.** Distribution of published research by sub-disciplines in Korea

Category	Sub-disciplines	Number/proportion (%) of articles	Cumulative %
Anatomy	Gross anatomy	16.6%	16.6%
	Clinical anatomy	10.5%	27.1%
	Neuroanatomy	7.4%	34.5%
	Embryology	4.3%	38.8%
	Histology	26.5%	65.3%
	Imaging anatomy	4.4%	69.7%
	Molecular biology	5.0%	74.7%
	Anatomy education	5.9%	80.6%
Biological Anthropology	Physical anthropology	5.1%	85.7%
	Paleoanthropology	0.2%	85.9%
	Human biology	1.7%	87.6%
	Bioarchaeology	4.0%	91.6%
	Paleopathology	1.0%	92.6%
	Forensic anthropology	3.2%	95.8%
Miscellaneous (etc.)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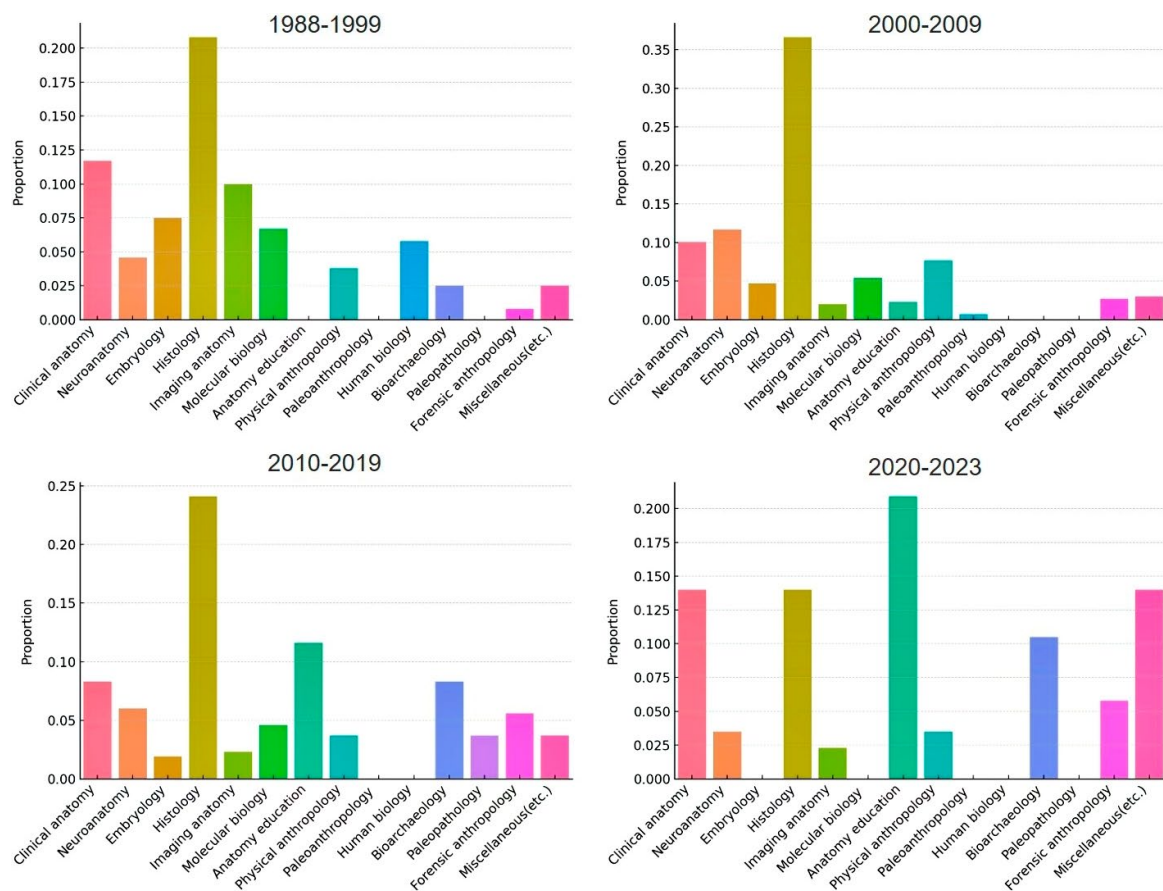


Fig. 1. Changes in the research proportion of sub-disciplines over time in Korea.

Table 3.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sub-disciplines over time in Korea

Sub-disciplines	Proportion (%) of articles by year			
	1988~1999	2000~2009	2010~2019	2020~2023
Gross anatomy	23.3%	13.1%	16.2%	11.6%
Clinical anatomy	11.7%	10.1%	8.3%	14.0%
Neuroanatomy	4.6%	11.7%	6.0%	3.5%
Embryology	7.5%	4.7%	1.9%	–
Histology	20.8%	36.6%	24.1%	14.0%
Imaging anatomy	10.0%	2.0%	2.3%	2.3%
Molecular biology	6.7%	5.4%	4.6%	–
Anatomy education	–	2.3%	11.6%	20.9%
Physical anthropology	3.8%	7.7%	3.7%	3.5%
Paleoanthropology	–	0.7%	–	–
Human biology	5.8%	–	–	–
Bioarchaeology	2.5%	–	8.3%	10.5%
Paleopathology	–	–	3.7%	–
Forensic anthropology	0.8%	2.7%	5.6%	5.8%
Miscellaneous (etc.)	2.5%	3.0%	3.7%	14.0%

물학, 생물고고학, 고병리학, 법의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연구는 모두 합쳐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각 분야별 연구 비중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 Fig. 1의 내용과 같다. 1988~1999년까지 출판된 논문의 현황을 보면 맨눈해부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학, 임상해부학 순으로 해당 분야의 논문이 많이 출판되었다. 반면 전통적인 체질인류학은 약 4%, 생물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분야의 연구는 10% 미만의 비중을 보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논문 중에는 조직학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맨눈해부학 분야의 연구가 많이 출판되었다. 한편 2000~2009년 사이 전통적인 체질인류학 연구는 그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으나 생물인류학 분야의 연구는 3.4%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였고 2010~2019년 사이 다시 17.6%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2020~2023년의 구간에는 이례적으로 해부학 교육 분야의 논문이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 남짓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통적인 체질인류학 분야의 연구는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생물고고학 분야의 연구는 이전 구간보다 증가하여 10.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생물인류학 분야 내에서는 법의인류학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체질인류학회지와 생물인류학회지에 실린 원저 논문은 총 3,388편에 달하며, 각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당 연구 분야를 분류하여 각 분야별 비중과 그에 대한 시대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Fig. 2, Table 4의 내용과 같다. 미국 학술지에는 지난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영장류학에 속하는 논문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영장류학 분야의 비중과 그 다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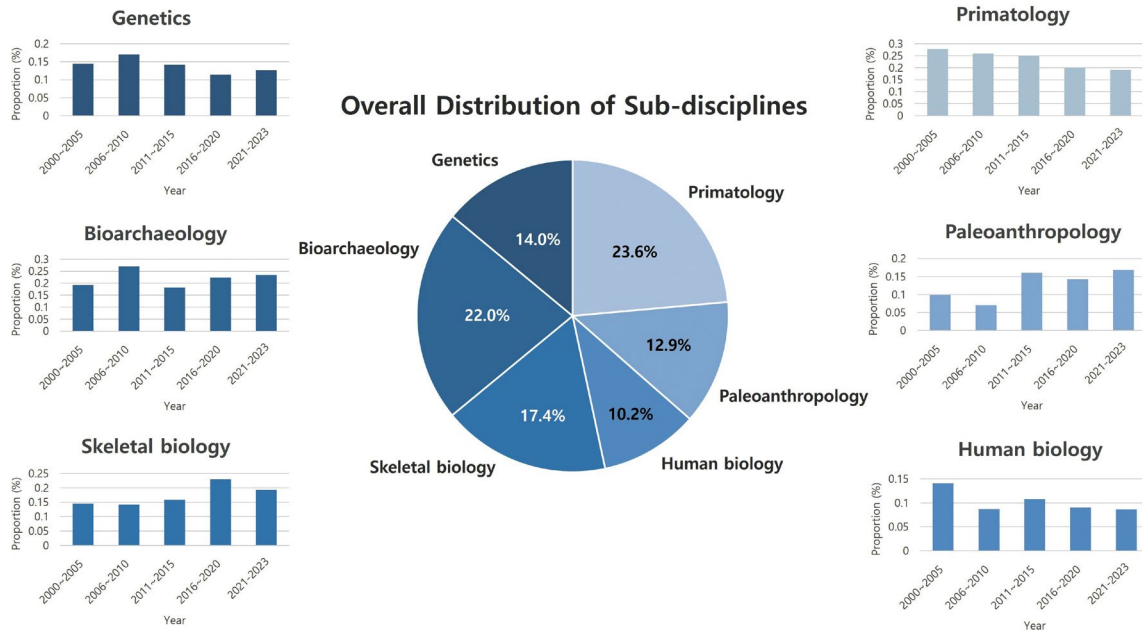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published research by sub-disciplines in U.S.

Table 4.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sub-disciplines over time in U.S.

Sub-disciplines	Proportion (%) of articles by year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3
Primatology	27.8%	26.0%	24.9%	20.0%	19.1%
Paleanthropology	9.9%	7.1%	16.1%	14.3%	16.9%
Human biology	14.1%	8.7%	10.8%	9.0%	8.6%
Skeletal biology	14.5%	14.2%	15.8%	23.0%	19.3%
Bioarchaeology	19.2%	27.0%	18.2%	22.3%	23.4%
Genetics	14.5%	17.0%	14.2%	11.4%	12.7%

로 높은 비중을 보인 생물고고학 분야의 비중 차이가 2% 미만으로 적었고 나머지 네 개 분야 즉 뼈대생물학, 유전학, 고인류학, 인간생물학 분야의 연구도 모두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의 경우처럼 분야 간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각 연구 분야의 시대별 비중 변화를 보면 대체로 뼈대생물학과 고인류학의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영장류학 분야의 연구는 전체 비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이십 년 동안 연구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대한체질인류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검토한 결과 국내의 경우 체질인류학 및 생물인류학 연구의 비중보다는 해부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체질인류학 연구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체질인류학 연구는 기초 및 임상 의학과 더불어 의학 연구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주로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당시의 체질인류학 연구는 조선인의 뼈대를 비롯한 신체 계측을 토대로 조선인의 몸을 규명하고 이를 다양한 인종과 비교하여 인종학적 층위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5]. 이렇듯 신체의 각 부분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수치화하던 20세기 초 체질인류학의 전통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교육을 통해 조선인 해부학교수로, 일부는 체질인류학 연구자에게 이어져 오늘날 한국 체질인류학의 뿌리가 되었고 그러한 학문적 전통이 현재까지 남아있다[2]. 즉, 해방 이후에도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체질인류학 연구의 명맥이 유지되긴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학문적 관심이 저하되면서 연구 자료의 축적은 물론 학문 후속 세대 역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질인류학 연구의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학회 차원의 자구책으로 해부학 분야의 연구가 체질인류학 연구의 공백을 메꾸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체질인류학은 형태기술적 전통을 극복하고 진화이론을 통합하여 인간이 지닌 중으로서의 생물적 특성을 연구하는 종합 학문으로서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신체계측에 집중되었던 연구 방향이 인종 분류에서 나아가 인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탐구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연구 관점과 방법들이 제안되었다[6]. 현재 미국생물인류학회지에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즉 현재 미국생물인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주된 연구 분야는 영장류학, 고인류학, 인간생물학, 뼈대생물학, 생물고고학, 유전학

분야로 국내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분야의 구성은 물론 각 분야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어느 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감 있게 그 성과들이 출판되고 있다. 미국생물인류학회는 인류학적 또는 진화적 맥락 안에서 비인간 영장류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고인류학, 인간생물학, 뼈대생물학, 생물고고학, 유전학의 분야를 통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당 연구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성과를 지원하고 있다[7].

이렇듯 학회지에 출판되는 연구 분야의 구성과 비중, 연구논문의 수적 규모 면에서 미국의 생물인류학회지와 우리의 상황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생물인류학회는 현재 전체 회원 수가 2,200여 명을 넘는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로 전세계의 인구집단과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 뼈 컬렉션을 연구 자료로 진행된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영장류학이나 고인류학 연구는 연구 자료와 연구자는 물론 교육 여건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생물고고학이나 인간생물학에서 다루어지는 연구 자료의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성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술지 내 법의인류학과 생물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국내 생물인류학 연구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서 법의인류학은 생물인류학 내 응용 분과학문으로 미국생물인류학회에서는 그 연구 성과가 다루어지지 않고 별도의 학회인 법과학회에서 논의되는 분야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식별 및 신원확인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체질인류학 혹은 생물인류학보다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생물고고학 분야 역시 연구자 수가 최근 다소나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다루어지는 연구 주제 역시 이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또 기존에 주로 화장 처리되었던 고고유적 출토 사람뼈 자료가 2022년 관련 법령의 마련으로 ‘중요출토자료’로 인정되면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기에 향후 연구 성과의 증가세가 더욱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체질인류학회지와 해부·생물인류학에 게재된 원저 논문의 해당 분야를 검토하여 현대 한국의 체질인류학 및 생물인류학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생물인류학회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연구되는 생물인류학 분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근 기존의 체질인류학 연구와 더불어 생물인류학 내 학위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의 변화는 자못 기대된다. 다만 한국의 생물인류학이

인간의 생물적 속성을 다루는 포괄적 학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인 집단과 옛 사람뼈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cited 2024 June 7].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iprdDetail?iprdId=IPRD00010184>.
2. Pak SY. Academic Tasks Left by Physical Anthropology under Japanese Colonialism and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stern Physical Anthropology. *Cross-Cultural Studies*. 2004;10:191-220.
3. Cho H. Biological or physical anthropology? A U.S. perspective on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2019. Proceedings of the 62<sup>nd</sup> Annual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Anthropologists. p. 14.
4. *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cited 2024 June 7]. Available from: <http://journal.kci.go.kr/aba>.
5. KIM OJ. Physical Anthropology Studies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Medical School. *Korean J Med Hist*. 2008;17:191-203.
6. Hyun JH. Changing methodologies and reshaping concepts in biodiversity science: a historical review of research on human genetic diversity. *Korean J Environ Biol*. 2014;32:413-25.
7. *American Journal of Biological Anthropology*. [cited 2024 June 7]. Available from: <https://onlinelibrary.wiley.com/journal/26927691>.

**간추림** : 체질인류학은 초창기 민족의 기원과 형태적 특성의 분석에 집중해오다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의 생물적 속성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융합학문으로 변모되면서 오늘날에는 생물인류학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체질인류학 연구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체질인류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를 검토하였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로 미국생물인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내의 경우 해부학 분야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생물인류학 범주의 논문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의 학술지에는 생물인류학 내 분과학문 분야인 영장류학, 고인류학, 뼈대생물학, 생물고고학, 인간생물학, 유전학 분야의 논문이 고른 비중으로 출판되고 특히 최근에는 고인류학, 뼈대생물학 분야의 논문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내 학술지에 해부학 분야의 연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해부학교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국내 체질인류학의 연구사가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의인류학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생물고고학 분야의 연구자 역시 다소 증가하면서 연구의 주제가 보다 다양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어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인간의 생물적 속성을 다루는 포괄적 학문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합하며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찾아보기 낱말** : 체질인류학, 생물인류학, 대한체질인류학회, 미국생물인류학회지, 해부학